

불국선원 건립의 사상적 의미와 특징

김종두(혜명)*

• 목 차 •

- I. 서론
- II. 불국선원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 발원
 - 1. 불국선원 건립의 필요성
 - 2. 월산 대선사의 불국선원 건립 발원
- III. 월산큰스님의 해결제법문의 특징
 - 1. 모든 중생의 불성(眞佛)과 수행정진
 - 2. 참된 지혜의 완성으로서 일행삼매(一行三昧)와 중도(中道)
- IV. 불국선원의 구조적 특징과 안거
 - 1. 인도의 위하라(vihāra) 석굴사원
 - 2. 중국의 칠당가람(七堂伽藍)
 - 3. 선원안거 대중의 특징
- V. 결론

*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 『大覺思想』 제36집 (2021년 12월), pp.85-116.

한글요약

불국사는 신라시대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불교의 진리를 설교해주는 성지로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불국사의 경내에 있는 불국선원은 월산 큰스님의 원력과 발원으로 이루어진 수행처이다. 월산큰스님은 선교율(禪敎律)에 정통하시면서 철저한 간화선수행과 지혜의 안목을 갖추시었고 이사(理事)에 원용무애한 명안종사이셨다.

1974년에 주지로 취임하신 월산큰스님은 폐사나 다름없이 폐허된 불국사를 복원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 큰스님은 사찰은 관광지가 아니라 수행과 신행도량임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관심 밖인 수행처인 승당과 선원, 강원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후에 큰스님은 민가를 사고 선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큰스님의 원력과 종상스님의 은사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어우러져 수행도량으로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된다.

큰스님께서 조실로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납자들을 지도하시었는데 이것은 평생 큰스님께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신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였다.

이러한 불국선원은 많은 명안종사께서 수행을 하시었고 선풍을 드날리셨다. 1982년 하안거부터 1984년 동안거까지 월산큰스님의 제자인 법달(法達)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았다. 이후 1995년 동안거부터 종우(宗雨)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면서 1997년 동안거부터 설당(雪堂, 종우)스님께서 선원장의 소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 입승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본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주사와 불국사를 중심으로 전국 교구본사의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고 수행 정진하면서 한국선의 종풍을 드날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월산큰스님, 불국선원, 종상스님, 법주사, 불국사

I. 서론

불국사는 신라시대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불교의 진리를 설교해주는 성지로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불국사의 경내에 있는 불국선원은 월산 큰스님의 원력과 발원으로 이루어진 수행처이다. 월산큰스님은 선교율(禪敎律)에 정통하시면서 철저한 간화선 수행과 지혜의 안목을 갖추시었고 이사(理事)에 원융무애한 명안종사이셨다.

큰스님은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차등이나 차별 없이 대하셨고 그래서 소중하고 존귀하며 열심히 수행하여 성불할 것을 강조하시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존중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셨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신 것은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계로써 스승을 삼아야(以戒爲師) 한다고 하였고, 또한 계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비구들이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공부를 할 때에는 목숨을 돌보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한가함이 아닌 진정한 화두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진해야 되는 것을 백 척이나 되는 장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큰스님은 교학공부에 밝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승경전의 공부에 힘써야 한다고 하시었다.

실제로 큰스님은 선사상(禪思想)에 정통하시면서도 교학의 깊이도 대단하시었다. 『유마경』의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좋아 하시었고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와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과거진생에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로 수행하고 있었을 때, 모든 중생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라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인욕보살로서 살면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기면서 수행하면 궁극적으로 성불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시었다.

그리고 많은 대승경전들을 공부하면서 그 경전의 언어적 표현에 매이거나 집착하게 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론』의 사구(四句)의 논리도 설교하시면서 중도(中道)의 이치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선가(禪家)에서 수행의 정진과 가르침으로 활용하는 다도(茶道)의 이치를 주주스님의 깍다거(喫茶去)를 통해서 평상심의 마음이 진리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내용을 모든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하는 큰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뜻을 가진 큰스님께서 어떻게 불국선원을 만드시고 수행자들을 지도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국선원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은 월산큰스님께서 불국선원을 건립하신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후 불국선원의 구조적 특징과 사상적 연원, 결제와 해제 범문 그리고 방함록 등을 살펴보고 불국선원이 어떠한 사상적 특징과 역사를 가지고 조성되었는가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II. 불국선원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 발원

1. 불국선원 건립의 필요성

불국사의 설선당(說禪堂)과 심검당(心劍堂)은 경을 강론하고 좌선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태인이 1749년에 중창한 광명당선실(光明堂禪室)도 좌선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불국사 창건 이래로 지금까지 그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다. 대체로 신라나 고려 때에는 이런 이름의 건축물이 없었고 조선중기에 나타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구산선문이 형성되고 남종선이 보급되면서 신라와 고려시대에 서서히 선이 알려지면서 전문적인 수행처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런데 그 좌선을 하는 곳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이것은 불국사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설선당과 심검당, 그리고 광명당선실의 이름을 통해 살펴봤을 때 분명히 조선중기 이전부터 선수행이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와 신라 중대인 8세기 중엽까지는 미륵신앙, 정토신앙, 밀교신앙, 법화신앙, 삼론학, 유식학, 화엄학 등 대승불교의 여러 신앙과 교학이 고르게 발전하였다. 그러다가 점차로 화엄교학이 성행하여 전국에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을 위시해서 화엄도량이 보편화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 당대(唐代)의 조사선풍(祖師禪風)이 수용되었다. 당시의 조사선풍은 신조류를 이루어 당에 가서 조사선법을 인가받고 귀국한 선

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매우 높았다. 그리하여 전국에 걸쳐 여러 선찰이 개창되었다. 이렇게 개창되기 시작한 선찰은 신라 하대와 고려 초기에 가장 많이 건립되었으며, 고려 중, 후기에도 간헐적으로 건립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선종사찰을 구산선문(九山禪門)으로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독립된 선찰은 없었으나 신라, 고려와는 달리 대찰에는 반드시 선당(禪堂)이 배치되었으며 산중의 사암에 소규모의 선우(禪宇)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건립된 선원은 그 위상과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큰 것이었다.¹⁾

특히 조선시대의 선원은 대찰에서 선원이 수행의 당우(堂宇)로 위상을 지키어 전체의 사격을 높여주었고, 산중의 사암에서는 선우(禪宇)가 법란시대에 법등을 이어주는 법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선원의 위상과 역할은 한국불교사와 한국문화 속에서 길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

아울러 신라시대 창건이후 불국사는 수많은 중수와 중창을 거듭하였다. 특히 18세기 말에는 중수가 집중되어 웅장한 가람을 지닐 수 있었다.³⁾ 1740년(영조 16) 동은(東隱)이 편찬한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에는 가람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17개의 전각과 회랑, 극락전을 중심으

1) 첫째, 선원은 수행과 교육의 도량이었다. 선원에서는 구법대중이 운집하여 노역(勞役)과 좌선의 실천으로 수행을 연마했다. 수행도량으로서의 선원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선원에서는 상당법어(上堂法語), 입실참문(入室參問), 수시문답(隋時問答), 담선법회(談禪法會), 총림법회(叢林法會) 등을 통해서 중생의 미혹함을 깨우쳤으니, 이것은 특수한 방법의 훌륭한 교육행위였다. 둘째는 국가의 중요한 원찰(願刹)이었다. 한국의 역대 선찰에서는 국왕의 수명과 선왕의 명복을 위하여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건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신라 선찰의 주변에는 사방에 경계를 정하여 금살당(禁殺幢)을 세워서 사냥을 금하게 하고 특수 영역으로 보호한 예도 적지 않았으니 이것은 국가의 원찰도량으로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고려의 선찰에서는 북명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담선법회를 격년제로 열었는데 담선법회가 중요한 호국적 염원이 담긴 행사였다. 선찰을 호국의 도량으로서도 중요시 되었다. 셋째는 국민의 복지(福地)였다. 한국의 명산에는 어디에나 보찰(寶刹)이 있고, 보찰은 항상 국민이 수명과 복을 기원하는 도량이었다. 이것은 선찰도 다를 바가 없었다. 복을 닦고 죄를 멸하는 것은 일반사찰뿐만 아니라 선찰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이행해 왔다(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선원의 역사」, 불교시대사, p.76).

2)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의 역사』, 『선원총람』, 불교시대사, 2000, pp.75-76.

3) 이강근, 「佛國寺의 목조건물과 修理·復原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7, 2000, pp.3-5.

로 11개의 전각, 비로전 일대에 3개, 관음전을 중심으로 7개의 문루(門樓)와 전각, 지장전을 중심으로 9개의 전각과 누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⁴⁾ 그리고 이외에 위치를 알 수 없는 건물을 언급하고 있다.⁵⁾

오백성중전(五百聖衆殿, 32칸), 천불전(天佛殿, 25칸), 시왕전(十王殿, 5칸), 십육응진전(十六應眞殿, 5칸), 문수전(文殊殿, 5칸), 동당(東堂, 4칸), 서당(西堂, 4칸), 동별실(東別室, 5칸), 서별실(西別室, 5칸), 청풍료(淸風寮), 명월료(明月寮), 영빈료(迎賓寮), 객실(客室), 왕자문설선당(王子問說禪堂), 심검당(心劍堂).

이러한 것들은 조선의 선조26년(1593)에 이곳에 침략한 왜병들이 불국사에 불을 질렀을 때까지 건립되었던 모든 건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불국사 창건 당시의 규모를 정확한 기록의 부재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불국사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석불사(石佛寺)의 정교함과 그 크기를 보아도 아마 상당히 큰 가람으로 창건되었다고 보여진다.⁶⁾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1604년 관음전 중건의 시작으로 1659년 대웅전의 건립으로 재건 공사가 일단락되었다. 그 후 실시한 공사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보수 및 단청 공사가 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00여 년간의 공사가 원래의 가람 구조를 제대로 복원한 것은 아니었다. 1729년 도승(道僧) 태인(太仁)이 호남으로부터 와서 보고 “절의 규모가 서역의 불국을 모방하기는 하였으나 깨끗하고 더러운 곳, 성스러운 곳과 범속한 곳을 구별하지 않아서 질서를 잃었다고 개탄하면서 3곳의 요사채를 경루 밑으로 옮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승방이 불전 구역에 함께 배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태인은 1749년에 광명당선실을 중건하고 1765년에는 대웅전을 중창하였다. 이때 그는 호남의 승려 18인을 불러 모아 영

4) 『佛國寺古今創記』,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pp.271-286.

5) 그런데 이상과 같이 언급한 모든 시설들이 과연 창건 당시의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건 당시를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후대에 첨가하고 증축된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국사고금역대기』의 이 부분 기록을 보면 글씨도 일정하지 않고 크기도 달라서 후대의 가필(加筆)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임진왜란 이전의 장엄(莊嚴) 모두를 기록하여 오늘에 전해준 것으로 생각된다(한국불교연구원, 『불국사』, 일지사, 1974, p.24).

6) 한지운, 『佛國寺 構造에 나타난 密敎의 要素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5, pp.11-12.

남의 승려 10여 명과 함께 대웅전 중창 공사를 벌였다. 이때 명부전(1759년), 적광전(1768년), 자하문(1781년) 등이 함께 중창되고 불국사는 비로소 옛 모습을 복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⁷⁾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왕자문설선당과 심검당이다. 이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설립시기와 연대를 알 수 가 없다. 그리고 이 두 건물은 건축구조상 조선시대의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심검당과 설선당이 남아 있는 사찰은 영천 은혜사(1264년 중창)인데 이 심검당은 대웅전 앞 동쪽에 있다. 큰 대웅 방 뒤쪽에 부엌과 채공소를 ㄱ자로 꺾어 붙이고 북쪽에 작은 승방체가 접속되어 이루어진 ㄷ자 평면의 내정 동쪽에 따로 2층 목조 고루가 배치돼 전체적으로 트인 ㄱ자 형의 후원이다. 고루 북쪽 끝에서 다시 객실동을 ㄱ자로 꺾어 붙여 하나의 거대한 승료가 되었다. 설선당은 심검당과 앞뜰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내소사는 대웅보전의 좌측에 설선당(1640년 건립)이 있고 선암사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심검당과 설선당이 배치되어 있다. 마곡사(1651년 중건)의 심검당은 대광보전의 노진, 또는 대방으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규모가 큰 요사로서 대광보전보다 조금 아래쪽 동편에 광장과 면하여 위치하고 있다. 장곡사의 설선당은 하대웅전(보물 181) 왼쪽에 있으며 조선 중기에 건립되었다.⁸⁾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심검당과 설선당은 대웅전의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선방과 강당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불국사고금역대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곳은 다른 사찰로 보면 대웅전의 좌우에 있어야 하는데 불국사에는 그 곳을 찾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지고 임진왜란 이후 수많은 중건과 중수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불국사에서는 전문적인 선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7) 장지정, 「제3, 4공화국의 문화정책과 불국사 복원 과정을 통해 본 문화재 보존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4, pp.45-46.

8) 박현정, 「사찰요사(要舍)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고찰」,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 pp.51-65 참조.

2. 월산 대선사의 불국선원 건립 발원

1974년 초에 불국사 주지로 부임한 월산 대선사께서는 마무리 되지 않은 불국사를 복원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관광단지 발전 계획을 세우고 불국사와 석굴암의 복원 및 보문단지의 개발 계획을 직접 진두지휘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불국사의 경내지를 중심으로 대웅전, 회랑 등 담장 안만을 복원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이때 불국사의 경내지는 약 3만여 평으로 그 속에는 승당이나 수행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월산 대선사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에서는 대웅전, 무설전, 관음전 등 전각이나 회랑을 복원하여 관광 사찰로써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였지만, 대선사께서는 사찰은 관광지가 아니라 수행과 신行道량을 중시하였다. 정부의 관심 밖인 수행처인 승당과 선원, 강원, 요사채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불국사의 진정한 복원은 수행처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력을 세웠다. 평생을 참선수행하고 전국 각 선원에서 오랜 정진을 한 월산 대선사께서는 무엇보다 선원건립의 원력이 첫 번째 불사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력은 정부의 불국사 복원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황용사와 왕궁 등을 복원하여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로 방문자들에게 손색이 없는 문화복합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문화관광부에 지시를 하였다. 신라천년 고도인 경주를 관광사업화 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의 복원과 함께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보문단지개발도 시작하였다. 즉 해외나 국내관광객이 경주에 와서 불국사, 석굴암을 참배하고, 보문단지에서 레저를 즐기면서 숙박하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박정희대통령이나 문화관광부에서는 경주개발계획 및 보문관광단지개발을 하고 불국사, 석굴암의 성역화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을 하였다.

따라서 월산 대선사께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국사의 복원과 관계없이 경내지 담장 밖의 토지 구입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불사는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불국사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을 발원하였다.

그러나 경내지에는 이러한 시설을 건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외지인 주위를 살펴본 결과 포도나무 등 과실수를 심어놓고 농사를 짓는 집에 관심을 가졌다. 농막과 같았지만, 부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농막과 전답을 구입하였

다. 전답에는 소나무 등 숲이 무성하였고, 진입로조차도 없는 맹지였다. 먼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선원본당, 요사채(조실실), 후원채, 화장실 등을 건립하였다. 불국선원 불사는 1974년 가을에 시작하여 1975년 말경에 회향하였다. 선원불사에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였다. 초기에는 3억 원 정도로 예상한 것과 달리 약 7천만 원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으며, 선원건립불사에는 행정절차상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 당시 상좌인 성타스님, 종상스님, 종우스님 등은 은사인 월산 대선사의 선원건립불사에 대한 큰 원력을 성취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난관을 하나하나씩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결하여 오늘의 불국선원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월산 대선사께서는 경내지 3만평을 5만평으로 확장하여 전체를 담장으로 도량을 정비하였다. 이어서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건립하고 사천왕상을 새로이 조성하여 봉안하였으며, 선원과 강원, 요사채도 마무리 하였다. 이로써 신라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천년이 넘는 문화유산 사찰임과 동시에 수행과 포교의 신행도량으로 일신하게 되었다. 그 후 전 대중이 이어서 불국사문화회관, 불국유치원, 성림어린이집,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림요양원, 성림문화재연구원, 불국사복지재단, 원효재단, 경주선원 등을 건립하여 원만히 운영을 하고 있다.

불국선원은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하여 원만히 불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불국사는 수행과 신앙의 귀의처인 불교 본래의 기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는 문화재사찰의 인허가의 어려움과 불사비 화주 등 난관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작불사를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월산 대선사의 초지일관된 대원력과 사부대중의 노력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난한 과정을 살펴보면, 월산 대선사의 원력과 종상스님의 은사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어울려 불보살의 가피가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국선원 건립과 도량정비의 어려움에 대한 자료는 문도들이 모인 가운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정리하였다.⁹⁾

9) 이 기록은 2021년 6월 28일 오후 6시 제37차 불국사발전위원회 회의장에서 대화한 내용이다. 기림사에서 성타스님, 법달스님, 덕민스님, 종상스님, 종우스님, 정문스님, 보광스님, 운성스님, 종성스님, 종천스님, 성웅스님 등 발전위원 13명이 참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토론한 것을 보광스님이 기록하여 작성하였음. 2차는 정문스님 차안에서 동일 오후 8시경 정문스님과 보광스님이 대화한 것을 기록함.

III. 월산큰스님의 해결제법문의 특징

1. 모든 중생의 불성(眞佛)과 수행정진

1) 제바달타(악인)도 성불할 수 있는 악인성불(惡人成佛)

『법화경』은 수기와 비유의 경으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수행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기약의 경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 어느 경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나 한국의 노비제도와 같은 비차별적인 인간단면의 참혹성을 자비적으로 포용하여 누구나 성불의 길로 이끄는 자애의 경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은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비롯하여 「묘음보살품」 등과 함께 민중의 아픔을 함께하고 쓰다듬으며 고향을 건너게 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 모습은 불국사의 대웅전과 그 앞의 석가탑과 다보탑과 법화전지로 상징되어 신라인의 혼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는 구원의 화신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고 고통을 구제해주는 관세음보살이 함께 있는 불국선원은 당연히 자신의 성불과 더불어 중생구제를 화두로 삼게 된다.

월산큰스님은 결제법문에서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여러 대중들은 그대로가 참다운 부처이니라, 부처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마음이 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도 있고, 가섭도 있고, 조달(제바달타)도 있다. 소 끄는 견우도 있고, 베 짜는 직녀도 있다. 그래서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¹⁰⁾

여기서 심지어 악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제바달타도 성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고 있다. 사실 『법화경』에서도 제바달타는 부처님께서 악인의 대명사로 언급하고 있지만 수기를 주는데, 천왕(天王)여래라는 부처가 되어 중생

2021년 7월 23일 보광스님이 초안 정리하였고, 문도스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10)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100.

을 제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바달타와 석가모니부처님이 전생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¹¹⁾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때 세상 사람의 수명은 한량없었는데, 법을 위하는 까닭에 왕위를 버리어 정사(政事)를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쳐 선포한 다음, 사방으로 법을 구하였느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을 설하겠느냐? 내가 몸이 다하도록 공양하여 모시리라.’ 그때 한 선인(仙人)이 와서 왕에게 말하였느니라. ‘나에게 묘법연화경이라는 대승경이 있으니, 만일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설해주리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떨듯이 기뻐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되, 과실을 따고 물을 길고 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거나 몸으로 그의 침상이나 앉는 자리가 되더라도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그 때 이렇게 받들어 모시기를 천 년 동안 하였는데 법을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힘쓰며 지성으로 시봉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 (중략) …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 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내 몸이고, 그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타이니라. … (중략) … 모든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라 제바달타는 이후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을 천왕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며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天道)이니라. … (중략) …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앞에 태어나며 나는 곳에서 항상 이 경을 들으리라.”¹²⁾

사실 부처님을 괴롭힌 제바달타도 성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마음의 미혹을 없애고 수행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반드시 불성은 있는 것이기에, 부처님의 법을 접하여 마

11) 차차석, 『다시 읽는 법화경』, 조계종출판사, 2010, p.206.

12) 『妙法蓮華經』(T9, 34b-35a), “時世人民壽命無量 爲於法故 捐捨國位委政太子 擊鼓宣令 四方求法 誰能爲我說大乘者 吾當終身 供給走使 時有仙人來白王言 我有大乘名妙法華經 若不違我當爲宣說 王聞仙言歡喜踊躍 卽隨仙人供給所須 採果汲水拾薪設食 乃至以身而爲床座 身心無倦 于時奉事經於千歲 爲於法故 精勤給侍令無所乏 … 佛告諸比丘 爾時王者 則我身是 時仙人者 今提婆達多是 由提婆達多善知識故 令我具足六波羅蜜慈悲喜捨三十二相八十種好紫磨金色 十力四無所畏四攝法 十八不共神通道力 成等正覺廣度衆生 皆因提婆達多善知識故 告諸四衆 提婆達多 卻後過無量劫 當得成佛 號曰天王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 世界名天道 … 佛告諸比丘 未來世中 若有善男子善女人 聞妙法華經提婆達多品 淨心信敬不生疑惑者 不墮地獄餓鬼畜生 生十方佛前 所生之處常聞此經.”

음의 표면에 덮여 있던 구름을 걷고 나면,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자신, 즉 불성이 찬란히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토록 자세하게 설해주신 불법에 대해서는 말세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구원이라고 이라고¹³⁾ 할 수 있다.¹⁴⁾

결국 『법화경』에서는 비록 제바달타는 악인이지만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불할 수 있고,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가 친절히 대해주고 공경한다면, 우리자신도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바달타는 악인이 아니라 선인으로 볼 수 있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¹⁵⁾

2) 인간존중의 배려와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

또한 월산큰스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법화경』의 상불경보살의 범문을 설하여 주시었다. 즉,

사람마다 구족한 참다운 부처는(人人具足天真佛)

곳곳에 모습을 나타내 광명을 놓네(處處開現放光明)

이렇게 이 세상은 부처로 가득 찼다. 왜 이들이 다 부처냐?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일월이란 아무리 구름이 가린다 해도 일월이 아닐 수 없듯이 비록 그대들이 외면하고 눈을 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처 아닌 자가 없도다.¹⁶⁾

실제 부처님의 과거전생의 상불경보살은 큰 인간을 존중하는 큰 서원을 세웠

13) 니와노 닛코, 『다시 읽는 법화경』, 경서원, 1996, pp.270-271.

14) 또한 제바달타의 수기와 신앙은 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이란 그 절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죄란 자성이 없는 것이며, 다만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생길 뿐’이라는 『천수경』의 가르침이 그것을 알려준다. 즉 인간들의 약속과 사회적 관습에 의해 선악이 갈리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선이 오늘의 악일 수도 있으며, 과거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절대적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절대적인 선은 열반과 구원뿐이라 말한다. 따라서 절대 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악도 인간이 어떠한 마음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차차석, 『다시 읽는 법화경』, 조계종출판사, 2010, p.207).

15) 김중두, 『『법화경』의 신행(信行)에 관한 고찰』,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2018, pp.102-104.

16)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범어집』, 불국사, 1998, p.65.

는데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수행하면서 세웠던 서원이기도 하다. 즉 부처님은 전생 위음왕불(威音王佛) 시절에 비구였다. 위음왕불이 열반하고 상법시대에 그 나라의 비구들은 증상만이 가득하고 큰 세력을 가진 비구가 많았다. 그 때 상불경보살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들에게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다 보살도를 행하여 장차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¹⁷⁾

사람들은 이런 그를 보고 모두 경멸하여도, 상불경보살은 이런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대들은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상불경보살의 서원이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성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반 중생들이 모두 존중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상불경보살은 우리 모든 중생이 본래 청정한 불성(佛性)이 내재되어 있음을 자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¹⁸⁾

또한 상불경보살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었다. 그의 실천 행은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온 몸을 바쳐 정진하여 공덕으로 부처가 된 것이다. 상불경보살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을 모시고 존경할 것을 가르친다. 모든 인간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임을 믿고 그들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참다운 범화행자가 되라고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야 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더 나아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게서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이 나와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법화경』의 가르침이다.¹⁹⁾

월산큰스님은 상불경보살님처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불성을 가진 부처로 보시며 수행을 하여 성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이다.

17) 『妙法蓮華經』(T9, 50c), “我深敬汝等 不敢輕慢 所以者何 汝等 皆行菩薩道 當得作佛.”

18) 신명희, 『『法華經』에 나타난 禪思想 一考』, 『동아시아불교문화』 21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 pp.180-181.

19) 이재수, 『『법화경』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이해』, 『천태학연구』 6집,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16, p.352.

3) 불성과 깨달음의 노래인 『증도가(證道歌)』

월산큰스님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라는 것을 영가현각의 『증도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 영가 현각은 6조혜능의 법을 이은 상수제자로서 하택신희, 남악회양, 청원행사, 남양혜충 등과 함께 6조문하의 5대 선장 중의 한분으로 손꼽힌다. 영가스님은 내외의 경전에 두루 통달하였고, 본래 천태종 계통으로 『불조통기』 권10에는 천태지관(天台止觀)을 많이 익히고 항상 선관(禪觀)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천태종 제5조인 좌계현랑(左溪玄朗: 673~754)은 스님과 동문이었고 후에 6조문하에서 득도한 후에도 서로 서신 왕래를 하였다.²⁰⁾ 그리고 세키구치 신타이(關口眞大)도 『선종영가집』 등을 분석하여 현각을 천태종의 승려로서 분류하고 최초로 천태종과 선종의 모습이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다.²¹⁾ 이러한 현각이 6조혜능을 만나서 일숙각(一宿覺)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중요한 계기는 차(茶)와 관련이 되어 『조당집』에 잘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²²⁾

월산큰스님은 범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삼세제불과 천하 선지식과 여기 모인 대중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삼세제불과 천하 선지식은 무엇이 잘나서 부처이고 조사이며 여기 대중은 무엇이 못나서 범부 중생인가?

배움을 끊고 할 일을 마친 한가한 사람은(絕學無爲閑道人)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不除妄想不求眞)

무명이라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불성이고(無明實性卽佛性)

환화공신 그대로가 범신이기 때문이다.(幻化空身卽法身)

너무나도 유명한 영가스님의 『증도가』 첫머리에 나오는 계송이다. 영가스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대중들은 그대로가 부처이다. 더 이상 무슨 증명이며, 인가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범부노릇을 그쳐라. 성인공부가 따로 없느니라.²³⁾

20) 불교신문사 편, 『선사신문』, 우리출판사, 1991, pp.75-76.

21) 關口眞大 지음, 혜명 옮김, 『천태지관의 연구』, 민족사, 2007, pp.290-291.

22) 김종두, 「중국 선차(禪茶)의 연원(淵源)에 관한 고찰」, 『한국불교학』 92집, 한국불교학회, 2019, pp.201-202.

23)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범어집』, 불국사, 1998, pp.111-113.

따라서 월산큰스님의 진리관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하며 존중과 배려의 대상으로 인자함과 자비심으로 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천한사람일지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천하게 대하지 않고 미래의 부처로 대하여 중국에 수행으로 이끌어서 성불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

2. 참된 지혜의 완성으로서 일행삼매(一行三昧)와 중도(中道)

월산큰스님은 결제법문에서 일행삼매의 실천을 강조하시었다. 일행삼매는 양나라의 만다라선(曼陀羅仙)이 천감(天監) 2년(503)에 『칠백송반야(七百頌般若)』를 번역한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 2권(『문수소설경(文殊所說經)』으로 약칭)과 양나라의 승가바라(僧伽波羅, 460~524)가 천감17년(518)에 번역한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대지도론』에도 기초해서 설해져 있다.

일행삼매라는 명칭은 『대품반야경』의 108삼매 중에 81번째 삼매라고 간단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대지도론』 권 제47에는 일행삼매를 공삼매만을 닦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대품반야경』과 『대지도론』에는 일행삼매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일행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문수소설경』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²⁴⁾

문수사리가 말하길 세존이시여 어떠한 것을 일행삼매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법계는 일상이다. 연을 법계에 거는 것, 이것을 일행삼매라 이름 한다. 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반야바라밀을 듣고 설한바와 같이 수학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능히 일행삼매에 들어간다. 법계의 불퇴(不退), 불괴(不壞), 부사의, 무애(無礙), 무상을 연하는 것과 같다. 또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면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혼란한 생각을 버리고 모습에 취착하지 말고 마음을 한 부처님에 두고 명자를 오로지 부르고 부처님 계신 곳을 따라 단정히 앉아 능히 한 부처님을 생각 한다. 곧 이 생각 속에서 능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본다.²⁵⁾

24) 김종두,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 경서원, 2007, pp.275-279.

25) 『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T8, 731a-b), “文殊師利言 世尊 云何名一行三昧 佛言 法界一相 繫緣法界是名一行三昧 若善男子善女人 欲入一行三昧 當先聞般若波羅蜜如說修學然後能入一行三昧 如法界緣不退不壞 不思議無礙無相 善男子善女

여기서 일행삼매란 ‘법계가 한 모습임을 깨닫고 생각을 그 법계에 고정해 멈추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행자는 그 요건으로 반드시 반야바라밀을 듣고 그 설한대로 수행하여 배운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한적하고 고요한 장소에서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뜻으로는 바깥 경계에 대한 분별망상을 버리며 오로지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이 가운데 앞의 것은 좌선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되며 일심칭명염불은 정토종에서 수용하기에 충분한 경의 전거를 제시해 준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일행삼매는 선에서는 일심칭명염불 대신 화두를 일심으로 드는 것으로, 그 밖의 다른 종파에서는 일행삼매의 요점을 나름대로 수용하여 발전시켜 온 전거를 제시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²⁶⁾

그래서 일행삼매는 선종의 도신뿐만 아니라 화엄종과 정토종에 있어서도 담란이 처음 『찬아미타불게(讚阿彌陀佛偈)』에 『문수소설경』을 사용하고 있으며²⁷⁾ 도작(道綽, 567~645)의 『안락집(安樂集)』 권하에는 반주삼매와 문수반야의 일행삼매의 뒷 구절을 인용해서 염불삼매로 하고 있다.²⁸⁾ 또 비석(飛錫)의 『염불삼매보왕론(念佛三昧寶王論)』 권하²⁹⁾등에 인용하고 있고 이어 선도(613~681)의 『왕생예찬게(往生禮讚偈)』에서 일행삼매를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행삼매로서 인증하고 그 의의를 두니 정토종의 입장이 명확히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³⁰⁾

이상과 같이 『문수소설경』의 일행삼매는 천태의 『마하지관』을 비롯하여 중국 불교의 여러 종파에서 특히 자기 종파의 실천행법의 근거로서 널리 주목되고 사

人欲入一行三昧 應處空閑捨諸亂意 不取相貌繫心一佛專稱名字 隨佛方所端身正向 能於一佛念念相續 卽是念中能見過去未來現在諸佛。”

26) 황근연, 「一行三昧의 淵源과 展開」, 『한국선학』 10호, 한국선학회, 2005, pp.295-297.

27) 『讚阿彌陀佛偈』(T47, 420c).

28) 『安樂集』(T47,14c).

29) 『念佛三昧寶王論』(T47, 142a), “則文殊所說摩訶般若經云 若人學射 久習則巧 後雖無心 箭發皆中 若人欲入一行三昧 隨佛方所 專稱名字 念念相續 卽於念中 見三世佛 如彼習射 既孰之後 無心皆中 非無念也何耶.”

30) 『往生禮讚偈』(T47, 439a), 정토종의 일행삼매에 대해서 藤原凌雪, 「일행삼매について」(『龍谷大學論集』 제360호, 1959년 2월) 참조.

용됐음을 알 수 있다.³¹⁾

월산큰스님은 이러한 일행삼매와 일상삼매를 강조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참된 지혜를 완성하여 온갖 형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미움도 사람도 없으며 갖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이롭거나 손해거나 무너뜨리거나 세우지 않으면 저절로 안락해지기 때문에 일상삼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온갖 곳에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그것이 곧 도량이며 정토가 되니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 한다. 이렇게 닦는 사람은 언하(言下)에서 광명천지를 보게 되리니 따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³²⁾

이것은 참된 지혜로서 얻어지는 진리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서 증득되는 사상은 중도의 가르침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큰스님은 이러한 중도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³³⁾

불범이란 처음에는 이래도 맞지 않고 저래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다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래도 한 방향이를 맞아야 하고 저래도 한 방향이를 맞아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여기 한 발자욱을 더 나가게 되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다. 그러니 이래도 안 때리고 저래도 안 때린다. 이것이 중도의 실상이니 중도는 두 개의 변을 떠나 가운데 머물기 때문이다.³⁴⁾

이러한 말씀은 경전에 밝으셔도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일을 하여도 진정으로 그 어디에도 걸림 없는 대 자유인의 심지법문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참된 지혜와 중도의 논리를 알려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31) 김종두,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 경서원, 2007, pp.275-279.

32)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p.101-112.

33) 김광식은 월산큰스님의 사상을 선사상과 중도사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선교율을 분리시키지 않고 선이 중심이고 최선이라고 보았지만 교학, 율행을 배제하지 않고 균형적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월산큰스님의 중도사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월산큰스님의 불교사상, 선사상의 구현에는 중도사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pp.80-81).

34)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p.232-233.

IV. 불국선원의 구조적 특징과 안거

1. 인도의 위하라(vihāra) 석굴사원

불국선원의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총림선원의 연원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 인도의 수하좌부터 시작된 수행공간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부처님 당시의 초기 승가는 사의법(四依法)에 의지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는데 대표적인 주거문제의 해결방식은 수하좌(樹下坐)로 큰 나무 밑이나 동굴, 계곡, 노지, 묘지 등을 의지해서 비바람을 피하며 수행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장소에서도 3일 이상을 머무르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머무는 자리에 대한 애착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생긴 제도이다.

이후 수행자의 수가 늘어나고 빔비사라왕 등 국왕 및 거사, 장자 등이 귀의하면서 상주하며 정진할 수 있는 정사(精舍)가 지어지게 되었는데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³⁵⁾ 이 가운데 기원정사를 건립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반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이 정사의 건립을 기록하고 있다.

바닥을 금을 깔고 금이 모자라는 부위는 문루(門樓, 출입 공간)을 세우고 300인이 거처하는 큰방과 선방(禪坊) 63개, 주방, 욕실, 밭 씻는 곳, 크고 작은 변소 등을 완비하였다.³⁶⁾

이 경전에서는 석가생존 시기의 중심건물은 강당으로 설명되며, ‘중각강당’이라는 명칭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점에서 석가모니 사후 교단화시기의 금당과 동일한 위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³⁷⁾

그리고 정사(精舍)를 위하라(vihāra)³⁸⁾라고도 하는데 초기의 위하라는 간소한

35) 덕문, 『알면 편하고 행복해지는 것들』, 불교신문사, 2017, p.243.

36) 『大般涅槃經』(T12, 786c), 405년 이후 동진에서 범현이 한역하였다.

37) 최태선,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공간의 배치」, 『신라사찰의 공간과 기능』, 국립경주문화재(3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20, pp.115-116.

38) 위하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출가자의 주거’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율의 건축규정에 의하면 매우 큰 건축물들을 가리킨다. 위하라가 세워져 있는 장소는 변화가나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 결식하러 가기에 적당한 거리에 위치

규모였으나, 승가의 생활이나 승가를 둘러싼 일반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위하라의 규모도 커지고 설비나 외관도 갖추게 된다.³⁹⁾ 그리고 위하라는 후대 부파불교 시대를 기점으로 굴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굴원은 위하라와 차이티야로 분류한다.

위하라 석굴은 중앙의 뜰의 공간을 중심으로 승려들이 수행을 할 때에 거처로 사용하는 작은 방들을 돌아가며 배치한 것이며 승방과 선당(禪堂)을 겸한 것이다. 위하라 석굴은 차이티야 석굴에 근접한 곳에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남아 있는 위하라 석굴은 수가 많으나 차이티야 석굴은 그 수가 적다.

당시에 개착하기 어려운 석굴건축을 만든 이유는 석굴건축이 영구적인 것이며, 굴 내부공간이 시원하고 조용하여 수도 생활에 적합한 까닭이었다. 또한 오랜 우기에도 비가 새지 않으며 인도의 그 지방에는 석굴을 만들기 좋은 암산이 많았던 이유라고 생각된다.⁴⁰⁾

그 대표적인 위하라 석굴 예는 아잔타 석굴군의 제12호 굴이다. 이 굴은 1층으로 된 전형적인 초기의 위하라 석굴이며 각 승방 입구 상부에는 반원형 박공 형태가 조각되어 있다고 보여진다.⁴¹⁾

한다. 게다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마을에 지나치게 가깝지만 얇은 곳이라면 괜찮다고 한다. 구조는 벽을 바르고 지붕은 벽돌이나 돌, 풀 등으로 잇는다. 마루나 벽은 백, 흑, 적토색으로 나누어 바르고 보기 좋게 완성한다.(사사키 시즈카 지음, 원영 옮김,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 민족사, 2007, p.164)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위하라의 안뜰에 성스러운 유물을 안치한 작은 탑과 여러 불상들이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위하라는 신성한 장소로서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위하라의 구조는 인도 서부에 있는 몇몇 위하라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곳의 위하라들은 종종 암벽에 굴을 파서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암벽을 깎아서 위하라를 건축하는 전통은 중앙아시아의 무역로를 따라 바미안을 비롯한 여러 곳에 널리 전파되어 다양한 조각과 회화를 지닌 수많은 훌륭한 기념물들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승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자 여러 개의 위하라, 탑, 그리고 불당 등으로 이루어진 ‘마하위하라’(거대한 사원이라는 뜻)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들 대사원은 학문의 중심지이자 고등교육기관으로서도 이름이 높았다.

(<https://m.cafe.daum.net> > BLDM > MIMMs > MIMMs)

39)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찬, 『계율과 불교윤리』, 조계종출판사, 2011, p.91.

40) 村田治郎, 『東洋建築史』, 彰國社, 1980, p.51.

41) 윤장섭, 『印度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75-76.



아잔타 제12굴(위하라 석굴) 내부

이러한 석굴은 불교의 북진로, 즉 중앙아시아 지역에 길게 펼쳐진 실크로드 상에 전파되어 각지에 위대한 석굴사원군을 만들어 냈다. 현 아프카니스탄의 바미안석굴을 비롯하여 지금은 중국 땅이 된 키질석굴, 베제클리크석굴 등을 거쳐 돈황 막고굴로 중국에 상륙했다.

중국에서도 석굴사원 조성 활동은 열풍과도 같아서, 용문석굴, 운강석굴 등 위대한 석굴군들을 창조하게 되었다. 고대 한반도에서도 불교가 전래된 이래 끊임 없이 석굴 조성을 시도해왔다.⁴²⁾

따라서 이러한 석굴사원은 철저한 무소유의 정신에 기반한 수행자의 수행정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산큰스님도 항상 무소유를 실천해 보이셨고 수행자의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수행자를 수행자답게 만들어 준다고 강조하셨는데⁴³⁾, 이러한 정신이 석굴사원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중국의 칠당가람(七堂伽藍)

중국 초기 사찰의 구조는 일반주택을 개조하여 사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42) 김봉렬, 『불교건축』, 솔출판사, 2005, pp.17-18.

43)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범어집』, 불국사, 1998, p.283.

전문적인 선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총림선원은 당나라의 백장선사가 선원을 율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중국과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역사에서는 400년 전후부터 인도나 서역에서 온 유행승들이 많아지면서 그 가운데 선정을 닦는 선승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인도나 서역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도 승려들이 거주하는 수행 공간으로 사원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사원에 선원(禪院, 禪堂)을 설립하기 시작했다.⁴⁴⁾

『고승전』에 전하고 있는 중국 초기의 수행자들은 주로 낙양이나 장안의 국립 사찰에 마련된 선원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속고승전』에 전하는 초기의 선승들은 대개 산중에 석굴 등을 파서 좌선당(坐禪堂, 禪窟)을 만들어 선정을 닦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중국불교사에서 본격적인 선원은 송산 소림사의 창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속고승전』, 『불타선사전』에는 북위의 효문제(孝文帝)가 태화(太和) 20년(496)에 불타선사를 위해 송산 소림사를 지어 기증하여 많은 선승들이 불타선사의 지도를 받으며 선정을 닦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는 사실 송산 소림사의 선원을 최초로 개설한 선승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후 달마가 중국에 와서 중국선종이 만들어지는데 도신과 흥인에 이르러 대규모 교단이 형성되었다. 특히 백장회해에 이르러 선원을 율원에서 독립하고 율장에 기초한 독자적인 청규를 만들어 선종총림의 수행가풍을 유지해갔다.

선종가람의 구조는 칠당가람(七堂伽藍)⁴⁶⁾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히 남송시

44) 중국초기의 사원형태는 일반주택을 개조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장소로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은 불교적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 부속하여 탑을 세워 불사(佛寺)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때 탑이 건축의 정면 앞쪽이나 중앙에 배치되어 불사의 중심이 되었으며 불전(佛殿)은 부수적인 위치에 놓였다. 이러한 형태는 동한(東漢)에서 남북조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가 되면 불교는 더욱 융성하여 사찰의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진다. 특히 불상의 조성이 성행하여 사원도 탑 중심에서 불전중심으로 변하게 된다. 당나라의 사찰건축은 복합중정(複合中庭)의 가람배치를 하였으며 회랑이 주위에 둘러져 있다. 서기 600년부터 800년까지 동아시아 사원의 가람형태에 이리난 변화는 중국, 한국, 일본의 사원 형태에서 쉽게 볼 수 있다.(신공, 『淸規와 禪院文化』, 붓다가야, 2008, pp.188-190).

45)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선원의 역사」, 불교시대사, 2000, pp.30-35.

46) 남송의 총림에 있어서는 산문, 불전, 불단이 일직선상에 놓여있고 오른쪽으로 욱

대에 정형화 되었으며 일본선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칠당가람은 선종사원의 형태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선종사원에서 칠당은 산문(山門), 불전(佛殿), 법당(法堂), 고원(庫院), 승당(僧堂), 욕실(浴室), 동사(東司)인 칠당우(七堂宇)를 가리킨다.⁴⁷⁾

도충은 『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에서 칠당은 법당, 불전, 산문, 주고(廚庫), 승당(僧堂), 욕실(浴室), 서정(西淨)을 들고 있다.⁴⁸⁾

이 가람배치에서 실제로 선원의 역할을 했던 승당⁴⁹⁾은 선원총림에서 좌선을 행하고 재족을 받으며 다탕(茶湯)을 행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수행자들이 수행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많은 대중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생활한다는 뜻에서 운당(雲堂)이라고도 하고, 재당(齋堂)이라고도 한다. 또한 식당(食堂)이라고도 하며, 좌선을 행하는 곳이므로 선당(禪堂)이라고도 한다.⁵⁰⁾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불전(佛殿)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¹⁾ 특히 백장은 당시 불교사원의 중심 건물인 불전(佛殿)의 기능이 국가와 황제에 대한 예

실, 고원(庫院)이 왼쪽으로는 동사(東司), 승당이 좌우로 대조되어 늘어서 있어서 절서정연한 가람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송의 『선원청규』에서는 아직 이러한 가람배치는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최현각, 『선학의 이해』, 불교시대사, 2003, p.326).

47) 鏡島元降, 『百丈清規變化科程の一考察』, 駒澤大學, 1967, p.2.

48) 신공, 『清規와 禪院文化』, 붓다가야, 2008, pp.201-202.

49) 사실 부처님 생전시에는 이러한 승당의 역할은 강당이 했던 것으로 보이며 강당에는 설법을 위한 사자좌가 설치되어 있고(『경율이상』), 강당의 다른 명칭으로 승(勝, 『대부탄경』), 득승당(得勝堂, 『대반열반경』)으로 표현되며, 강당에서 좌선(『마하승기율』)을 하기도 하고, 공양을 받아 회합(『대반열반경』)하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 경전의 내용을 종합할 때, 강당은 승단이 모이는 공식적인 곳으로 공양에서 좌선, 설법에 이르기까지 승단의 공식행사를 위한 곳으로 생각된다.(최대선,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공간의 배치」, 『신라사찰의 공간과 기능』, 국립 경주문화재(3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20, pp.124-125).

50) 적멸, 「慈覺宗蹟의 『禪苑清規』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201-203 참조.

51) 백장회해에 의하면, 법당은 한 산의 주지가 상당(上堂)하여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을 하는 것이며, 이 설법을 하는 곳이 법당이므로 선종의 가람에서는 법당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장은 현신의 부처님으로서의 주지가 상주하는 한 새삼스럽게 부처님을 모시는 당우(堂宇)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전의 기능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앞의 논문, pp.173-175 참조).

의와 기도 중심이었던 것에서 법당을 세워 수행 중심도량으로 바꾸고자 했다. 이것은 선종사원의 가람 기능과 구조 변화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일로 선종사원의 가람구조에 있어 불전과 법당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불전은 부처님을 모시는 전당(殿堂)으로 불전의 기능은 단순히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도량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당대에는 불전의 기능이 나라를 위한 기도와 모든 제왕의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법요의식을 봉행하는 도량으로 나타났다.⁵²⁾ 그래서 백장은 당시 선종사원에 법당을 세워 의례 중심적 사원의 기능을 수행중심적인 선원의 가람구조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⁵³⁾

이러한 점에서 월산큰스님도 불국사가 단순히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관광사찰의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본래 승가의 선수행 풍토를 회복하려고 했던 곳에 그 접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백장은 수행자의 본분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수행의 본원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국가권력과 불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수행자의 진정한 모습은 권력을 초탈한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월산큰스님도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본분사를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하면서 그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결실이 불국선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국선원의 건립 정신은 부처님 당시의 철저한 사의법(四依法)에 의지한 무소유의 철저한 수하좌의 정신에 바탕하고, 위하라의 석굴사원과 중국의 석굴 및 백장회해의 선원을 이은 칠당가람의 수행정신을 계승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을 한국의 전통선원과 조화를 이루어 불국선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⁵⁴⁾ 즉 불국선원은 인도와 중국과 한국의 선수행전통의 장점을 통시적 관점에서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큰 스님의 커다란 지혜

52) 近藤良一, 「唐代禪宗における 佛殿の問題」, 『印度哲學と佛教』, 平樂社, 1982, p.667.

53) 신공, 『淸規와 禪院文化』, 붓다가야, 2008, pp.203-204.

54) 불국선원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모신 방 가운데 방의 양 옆으로 한 층 높여서 좌선 장소를 만든 각각의 방에서 28명이 공부할 수 있게끔 특수구조로 꾸며진 선실은 재래식과 중국식을 절충하여 정진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젊은 시절 중국에 다녀온 바 있는 조실 스님이 직접 설계한 것이다. 이 선실의 구조에 대하여 6절을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범상(梵相) 스님은 “한 방이면 서도 좌선과 포행실이 분리되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식당, 목욕탕 등 완벽한 위생시설 및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이 가장 잘되고 있음 또한 불국선원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의 역사」, 『선원총람』, 불교시대사, 2000, pp.502-503).

의 안목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이 선원안거 대중의 지속적 참여와 증가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3. 선원안거 대중의 특징

불국선원⁵⁵⁾은 월산큰스님의 크신 원력과 자상하면서도 철저한 지도로 인하여 범룡(梵龍), 송담(松潭), 일타(日陀), 법달(法達), 혜정(慧淨)스님 등의 많은 명안 종사께서 수행을 하시었고 선풍을 드날리셨다.⁵⁶⁾ 무엇보다 경허·만공·보월·금오스님으로 이어지는 덕숭선맥을 이은 월산큰스님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불국선원은 일시에 번성기에 들었다. 선원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착한 것은 무엇보다도 불국선원의 조실로서 바깥살림보다 안살림에 치중했던, 그러기에 찾아드는 납자들의 제집에 소홀하지 않았던 스님의 원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⁵⁷⁾ 그리고 전 총무원장이었던 혜정스님께서서는 1986년 하안거에도 선덕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기2530년(1986) 하안거
큰방내 26, 큰방외 0, 외호 1, 총대중 27
조실 : 월산
선덕 : 혜정(慧淨, 범주사), 월은(月隱, 범주사), 능연(能然, 통도사) 입승 : 원각(源覺, 해인사)

그리고 선원의 방함록에 월산큰스님은 열반하시기 바로 직전인 1997년의 하안거까지 선원의 조실로써 납자들을 지도하시었다. 이것은 평생 큰스님께서 화두

55) 『선원총람』에 의하면, 불기 2524(1980)년 하안거부터 불기 2543(1999)년 하안거까지 불국선원에서 안거를 난 대중의 인원수는 1981년 하안거와 1982년 하안거를 제외하고도 외호대중을 포함하여 총대중이 1048명에 이르고 있다. 월산큰스님은 불국선원 개원 이후부터 입적하는 1997년까지 선원을 이끄는 조실로 주석하면서 선원의 수좌를 제집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석길암, 『성림월산과 불국사 선원』,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p.196)

56)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의 역사』, 『선원총람』, 불교시대사, 2000, p.494.

57) 석길암, 『성림월산과 불국사 선원』,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pp.196-197.

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신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항상 염화실보다 선원에 오셔서 대중과 함께 좌선에 들고 간혹 조는 수좌 스님들이 있으면 몸소 경책을 해주시었는데 월산큰스님의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덕화는 많은 감화를 주시었고 무소유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 이로 인해 많은 후학들이 큰스님의 회상에 모이게 되었다.⁵⁸⁾ 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불기2541년(1997) 하안거
큰방내 30, 큰방외 1, 외호 4, 총대중 35
조실 : 월산
선원장 : 종우(宗雨, 불국사), 입승 : 대전(大田, 해인사)

그리고 1982년 하안거부터 1984년 동안거까지 월산큰스님의 제자인 법달(法達)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고 있다. 이후 1995년 동안거부터 종우(宗雨)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면서 1997년 동안거부터 설당(雪堂, 종우)스님께서 선원장의 소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 입승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본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범주사와 불국사를 중심으로 전국교구본사의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여서 수행정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원방함록에는 2004년부터 외호대중이 기록되지 않고 큰방대중 스님들만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방부를 들인 스님들은 안거마다 대략 28명에서 41명을 전후로 하여 많은 남자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산큰스님이 주석하셨던 동안에도 그리고 현 선원장 종우스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고수되는 선원 운영의 방침은, 월산스님이 지향하고 실천했던 가풍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특히 월산큰스님은 용맹정진과 가행정진을 못하게 막았는데, 그 의도가 “조실스님은 용맹정진을 하다보면 참선이라는 본질은 간 데 없고, 그 형식만 남을 것을 우려했다”는, 그리고 “참선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선원장 종우스님의 전언에서 스님이 지향하신 독특한 가풍의 여전함을 엿볼 수 있다.⁵⁹⁾

58)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의 역사」, 『선원총람』, 불교시대사, 2000, p.503.

그리고 이것은 큰스님의 평상의 마음이 도(道)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다.

무자공안으로 유명한 조주스님도 한 소식을 얻기 전에는 바보천치나 다름없었다. 스승이 아무리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했다.

어느 날, 조주스님이 남전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이니라.”

그러나 조주는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을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그러면 도란 나아가서 향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란 그대로다. 향할 바가 있어서 생각을 낸다면 그르치느니라.”

그래도 조주스님은 알 수 없었다.

“생각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압니까?”

남전화상은 끝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도란 아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면 망각이요, 모른다면 무기(無記)일 뿐이다. 만약 의심이 없는 도를 참으로 요달할 것 같으면 허공과 같이 활달하여 넓고 넓어서 옳다 그르다 시비할 수 없게 된다.”

이토록 자세히 일러주자 조주는 그때서야 활연대오 했다.⁶⁰⁾

큰스님은 마조도일의 제자인 남전보원이 조주스님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신 기연을 소개하시면서 모든 대중들의 이분법화 되어 있는 분별적 사유의 틀을 없애주는 평상심의 도를 법문으로 일러주고 계심을 알 수 있다.

V. 결론

불국선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월산큰스님의 원력과 발원으로 건립되어 한국선의 종풍을 드날리고 있다.

1974년에 주지로 취임하신 월산큰스님은 폐사나 다름없이 폐허된 불국사를 복원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 큰스님은 사찰은 관광지가 아니라 수행과 신행도량임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관심 밖인 수행처인 승당과 선원, 강원 등이 갖추

59) 석길암, 「성립월산과 불국사 선원」,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pp.190-199.

60)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불국사, 1998, p.155.

어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후에 큰스님은 민가를 사고 선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큰스님의 원력과 종상스님의 은사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어우러져 수행도량으로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된다.

큰스님께서서는 조실로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납자들을 지도하시었고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자비롭고 인자하게 지도하시었다. 이것은 평생 큰스님께서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신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였다. 이러한 큰스님의 부드러운 은은한 덕화는 많은 감화를 주시었고 무소유를 몸소 실천해 보이시면서 이로 인해 많은 후학들이 큰스님의 회상에 모이게 되었다.

특히 선교육에 회통하신 큰스님은 해계와 결계 범문에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정진하여 성불할 것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상불경보살처럼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면서 모든 중생의 성불을 말씀하시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적으로 대하면서 깊은 인간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반야의 지혜를 완성하여 완벽한 중도의 이치를 터득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특히 큰스님은 선수행을 기반으로 교학과 육을 회통하여 완벽히 균형 있는 지혜의 안목을 갖게 지도해주시었다.

또한 백장회혜는 율원에서 선원을 독립하고 당대에 국가와 황제에 대한 예의와 기도 중심이었던 불전(佛殿)을 없애고 법당을 세워 수행 중심도량으로 바꾸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큰스님의 원력도 불국사가 단순히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관광사찰의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본래 승가의 선수행 풍토를 회복하려고 했던 곳에 그 접점이 있었다. 백장은 수행자의 본분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수행의 본원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국가권력과 불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수행자의 진정한 모습은 권력을 초탈한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큰스님도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본분사를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하면서 그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결실이 불국선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국선원의 건립 정신은 부처님 당시의 철저한 사의법(四依法)에 의지한 무소유의 정신에 바탕하고, 위하라의 석굴사원과 중국의 석굴 및 칠당가람의 수행정신을 계승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을 한국의 전통선원과 조화를 이루어 불국선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불국선원은 인도와 중국과 한

국의 선 수행전통의 장점을 통시적 관점에서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큰 스님의 커다란 지혜의 안목이 있다고 판단된다.

불국선원은 많은 명안종사께서 수행을 하시었고 선풍을 드날리셨다. 1982년 하안거부터 1984년 동안거까지 월산큰스님의 제자인 법달(法達)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았다. 이후 1995년 동안거부터 종우(宗雨)스님이 선원장의 소임을 보면서 1997년 동안거부터 설당(雪堂, 종우)스님께서 선원장의 소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 입승스님과 대종스님들의 본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주사와 불국사를 중심으로 전국교구본사의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고 수행정진하면서 한국선의 종풍을 드날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원문>

『續高僧傳』(T50, 427c)

『景德傳燈錄』(T51, 251a)

<단행본>

김종두,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 경서원, 2007.

關口眞大 지음, 혜명 옮김, 『천태지관의 연구』, 민족사, 2007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선원의 역사」, 불교시대사, 2000.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찬, 『계율과 불교윤리』, 조계종출판사, 2011.

김봉렬, 『불교건축』, 솔출판사, 2005.

나라야스아키, 정호영 옮김, 『인도불교』, 민족사, 1990.

니와노 닛쿄, 『다시 읽는 범화경』, 경서원, 1996.

덕문, 『알면 편하고 행복해지는 것들』, 불교신문사, 2017.

불교신문사 편, 『선사신문』, 우리출판사, 1991.

신공, 『淸規와 禪院文化』, 붓다가야, 2008.

이강근, 「佛國寺의 목조건물과 修理·復原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7, 2005.

윤장섭, 『印度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월산문도회, 『월산선사 법어집』, 불국사, 1998.

최현각, 『선학의 이해』, 불교시대사, 2003.

최태선,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공간의 배치」, 『신라사찰의 공간과 기능』, 국립 경주문화재,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20.

차차석, 『다시 읽는 범화경』, 조계종출판사, 2010.

한국불교연구원, 『불국사』, 일지사, 1974.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94.

鏡島元降, 『百丈淸規變化科程の一考察』 東京: 駒澤大學, 1967.

近藤良一, 「唐代禪宗における 佛殿の問題」, 『印度哲學と佛教』, 京都: 平樂社, 1982.

道忠 撰, 『勅修百丈淸規左鱗』, 京都: 中文出版社, 1977.

道忠 撰, 『禪林象器箋』, 京都: 中文出版社, 1977.

村田治郎, 『東洋建築史』, 東京: 彰國社, 1980.

<논문>

- 김종두, 「『법화경』의 신행(信行)에 관한 고찰」, 『한국불교학』 87집, 한국불교학회, 2018.
- 김종두, 「중국 선차(禪茶)의 연원(淵源)에 관한 고찰」, 『한국불교학』 92집, 한국불교학회, 2019.
-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 석길암, 「성림월산과 불국사 선원」,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 박현정, 「사찰요사(要舍)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고찰」,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
- 한상길,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 『대각사상』 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 한지윤, 「佛國寺 構造에 나타난 密敎的 要素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장지정, 「제3, 4공화국의 문화정책과 불국사 복원 과정을 통해 본 문화재 보존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적멸, 「慈覺宗蹟의 『禪苑清規』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 황금연, 「一行三昧의 淵源과 展開」, 『한국선학』 10호, 한국선학회, 2005.

Abstract

The Ideological Meaning and the Special Features of the Building
of the Bulguk Seonwon

Kim, Jong-doo(Hye-myeo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m, Gyeongju Campus,
Dongguk University.)

Regarding the Bulguksa Temple, by being created in the Silla Dynasty, while the flower of the splendid culture had been blooming until now, it has been playing a lot of the roles as a sacred place that elucidates the cultural pride and the truth of Buddhism to us.

Especially, the Bulguk Seonwon that is in the precinct of the Bulguksa Temple is a place of practice that is materialized with the power and the origin of the great Buddhist monk Wolsan. Regarding the great Buddhist monk Wolsan, while being familiar with the missionary law, he had possessed the meticulous koan meditation practice and the discerning eye of the wisdom. And he was a good-eye worker who had been wonjungmuae to the director.

The great Buddhist monk Wolsan, who was inaugurated as the chief Buddhist monk in the year 1974, he had poured in all of his strength on restoring the Bulguksa Temple, which had become a ruin without any difference from a ruined temple. And the great Buddhist monk had laid the emphasis that the Buddhist temple is not a tourist destination but a place for practice and a shinhaeng doryang. So, I had thought that the Seungdang, the Seonwon, the Gangwon, etc., which are outside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must be possessed. Afterwards, the great Buddhist monk bought a private house and began to build a seonwon. Despite a lot of the difficulties, the power of the great Buddhist monk and the extreme filial piety regarding the teacher of the Buddhist monk Jongsang had harmonized, the appearance gets around to being done newly with the performance skills.

Regarding the great Buddhist monk, as a joshil, until entering the nirvana, he had guided the napjas. This had been the appearance of a true teacher who had been devoted while not missing the topic of conversation on the part of the great Buddhist monk for the whole life.

Regarding such a Bulguk Seonwon, a lot of good eye workers had practiced, and it had been a sensation. From the haangeo in the year 1982 until the dongangeo in the year 1984, the Buddhist monk Beopdal, who was a disciple of the great Buddhist monk Wolsan, had been seeing the duties of the sailor. Afterwards, in the year 1995, from the dongangeo, while the Buddhist monk Jongwoo had been seeing the duties of the sailor, in the year 1997, from the dongangeo, the Buddhist monk Seoldang (Jongwoo) has been continuing the duties of a sailor until now. And, other than these, if the bonsas of the Buddhist monk Ipseung and the public monks are seen, mostly, centered on the Beopjusa Temple and the Bulguksa Temple, while a lot of the Buddhist monks of the National Parish Headquarters co-participate and performance devote, it can be known that the bell wind of the Korean line has been flying.

Key words

Great Buddhist Monk Wolsan, Bulguk Seonwon, Buddhist Monk Jongsang, Beopjusa Temple, and Bulguksa Temple.